

포스트휴먼 시대, 사이보그-되기의 기독교윤리적 응답

임마누엘 레비나스와 미로슬라브 볼프를 중심으로

홍창현 (장로회신학대학교, 객원교수)

I. 들어가는 말

II. 포스트휴먼 시대의 사이보그-되기: 근대 주체에서 포스트휴먼 주체 로

1. 근대 주체에 대한 반성적 성찰
2. 포스트휴먼 주체로서 사이보그-되기

III.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를 통해 살펴본 사이보그-되기

1. 근접성: 타자 개념의 연장
2. 타자의 얼굴: 타자와 함께-살아가기
3. 대숙: 타자에 대한 책임

IV. 사이보그-되기의 기독교윤리적 응답: 현대의 윤리

1. 공존의 현대: 팔 벌려 기다리기
2. 공생의 현대: 팔 모으기
3. 공정한 현대: 다시 팔 벌리기

V. 나가는 말

• ABSTRACT •

Posthuman Era, Christian Ethical Response to Becoming-Cyborg:
Focusing on Emmanuel Levinas and Miroslav Volf

Visiting Professor, Hong, Chang-hyu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paper explores a Christian ethical response to the emergence of cyborgs, which combine humans and machines, due to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 new humanism is needed to understand cyborgs, which emerge from interactions with non-human entities like machines. Machines are not merely instrumental beings that enhance human biological capabilities; they are 'Others' that enable ontological transformation by traversing boundaries and existing as relational subjects.

This study defines posthuman subjects as becoming-cyborg, organic machines, and argues that the subjectivity of these cyborgs is completed through the act of hospitality toward various mechanical Others. The philosophical concepts of Emmanuel Levinas, who has thought about the Other, provide insight into the ethical characteristics of becoming-cyborg. Following Levinas' philosophical thoughts, becoming-cyborg possesses the characteristics of extending the concept of the Other, living with and responsible for the Other.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becoming-cyborg through a Christian ethical lens reveals an ethics of hospitality. According to Miroslav Volf's concept of hospitality, which the theology has defined as an ethical metaphor of embrace, becoming-cyborg manifests itself as a hospitality of coexistence that communicates with non-human entities, a symbiotic hospitality that lives together with otherness as an acting subject, and a just hospitality that responds responsibly to the appeal of others.

Key words: Becoming-cyborg, the Other, Hospitality, Emmanuel Levinas, Miroslav Volf

%l mj k n

리는 인공 지능, 유전 공학, 가상 실 등 과학 술이 전함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전 다른 의 양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동안 술의 진보가 단 히 인간의 을 리하게 만 는 도구적 차원의 술 로 여겨 다면, 의 과학 술은 인간과 비인간(술, 계)적 존재 과의 결 을 통해 신체, 감 , 신 영역까지 강화 , ‘인간 향상’(human enhancement)이 이 어진 사이보그를 시 는 단계까지 이르 다. 이처 인간과 계의 단적 상호결 으로 생 종적 존재인 사이보그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이해해 던 주체- 자, 인간-자연, 생명- 계, 물 - 신 등 이분 적 이해를 부하고 인간 은 무 인지 다시 적인 문을 던진다.

학과 어 인간 이해에 대 성찰을 이어 온 신학은 인간과 계, 사물, 자연, 동물 등 존재 사이의 경계가 흐 해지고 연속성이 해체 되는 포스트 시대 속에 인간에 관 새로운 신학적 통찰력을 제공해 야 하는 시점에서 있다. 자에 대 주체의 제와 차 , 동화를 문제 고 윤리적 주체로서 인간-중심주의를 어나 인간과 비인간을 아 르 는 존재론적 관계성 성에 역할 수 있는 신학적 사유가 필요 때이다.

연구는 윤리적 관점에서 포스트 니 1)의 인 비 적 포스트 니 의 주 에 따라 포스트 의 구체적 실재인 사이보그-되 (becoming-cyborg)를 새로운 윤리적 주체가 성되는 과 으로 이해하고자 다. 인간과 계가 결 사이보그적 존재에 대해서는 다양

1) 신상규는 포스트 니 과 관 하여 “ 대적인 니 을 하고 과학 술 시대에 맞은 인간에 관 바른 이해를 모 하는 여러 론을 하는 이다”고 주 다. 포스트 니 에 대 신상규의 의와 같은 맥 에서 인간에 관 신학적 성찰을 시도 다. 고 신상규, 『호모 사피 스의 미 : 포스트 파트 스 니 』 (주: 아 , 2019).

층위가 존재 다. “인간은 원 부 생물학적 체와 술이 결 사이보그적 존재”²⁾라는 주 을 하며 재 과학 술로 구 해 수 있는 인간-계 결 을 사이보그적 존재로 논의 범위를 사이보그되 가 는 관계성에 중하여 윤리적 주체 성을 논의하고자 다.

사이보그되 는 계를 단 히 보 적 도구로서 이용하 나 인간과 분리 존재가 아니라, 히려 자 이해에 대 인식론적 전환을 일으 는 위이다. 인식의 전환은 실천으로 이어 인간과 인간을 어 비인간적 존재 , 계적 자 을 자신의 존재 안으로 환대함으로 존 에 환대 윤리가 고 있던 인간-중심주의적 논의에 을 일으 는 위 가 될 수 있다고 주 다. 나아가, 비인간적/ 계적 자와의 조 를 통해 자신의 주체성을 구성하는 사이보그 주체는 주체와 자의 경계 을 해체함으로 그동안 환대 론 안에서 논의되 던 무조건적 환대를 실에서 구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 다.

연구는 포스트 시대에 등 사이보그되 가 가지는 함의는 무 인지, 윤리적 으로서 사이보그되 가 어 계 환대의 윤리적 실천으로 될 수 있을지에 대 문에 해보고자 다. 이를 위해 자 윤리를 주 입 누 비나스(Emmanuel Levinas)의 학적 개념과 포 의 상학을 주 미로 라 볼 (Miroslav Volf)의 주 을 바 으로 사유하고자 다.

2) 위의 책, 89.

% " ° X W f i / f l [\ Z Y] ^ † \$ Ÿ / — ¢ , j " ° X
W — ¢ ~

° ° E I A { ~ I / & O f i O 1

술과의 결 을 통해 등 사이보그는 인간이라는 개념의 범주가
어 까지이며, 계와 구 되는 인간만이 가지는 특 은 무 인지, 나
아가 어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 은 성찰을 요구 다.

새로운 인간의 에 따라 인간관 역시 라 야 함을 고려할 때, 인
간을 이해해 던 전통적 사유에 대 반성적 성찰이 되어야 다.

대 인간 이해에 대 은 데 르트의 학에서부 시 다. 체
와 신의 분리를 통 '사유하는 자아'(코)에 따르면 물 적인 신체
는 비물 적인 신을 는 그 에 과하며, 신은 신체보다 위에
있는 영역으로 여겨진다. 신은 다른 생명체와 구 되는 인간 고유의
특성으로 '나'라고 하는 주체를 성하는 가 다. 대 인간
이해 안에서 주체성은 사유의 과 을 통해 자를 주체의 인식 안으로
포 하려는 자 화 과 을 다. 이러 과 을 통해 주체는 자를
지 하고 하는 동일화, 주체로의 환원을 일으 주체-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적 세계관을 양 다. 데 르트 이후 과 하이데 를

고해진 관념론 전통의 학은 대적 주체의 자 과 자 중심성
을 강조하며 자성을 용인하 어 게 만 는 전체주의적 태도를 이끌
다. 역사적으로 주체 중심적 학은 1, 2차 세계대전과 로코스트가
촉 되는 인식론적 경이 되 으며, 자아와 자의 이분 적 논리를 통
해 나와 다른 자성에 대 제와 폭력이 용인되는 '보 적 니 '이
생하게 되 다.

술 전의 전환을 통해 새롭게 등 사이보그는 성중심주의, 서

구중심주의, 인중심주의, 그리고 인간중심주의라는 대 니 이
 가지고 있던 단을 하는 지점이 될 수 있다. 비 적 포스트 니
 이론가인 서린 일스(Katherine Hayles)에 따르면 포스트 니 이
 과학 술의 진보를 바 으로 ‘ 니 이후의 니 ’을 논 다고 할
 때, 그 중심에는 술의 주도, 인간과 계의 결 여부다 중요 것이
 아니라 어 계 주체성이 구성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주 다.

ÓÓŁ , M'y ÓŁ Ł - i YÁŁ _%đ , , ° " IHM' , ° " Ó'M
 %x' ÓÓM_ %o - Ž' ~M'YÁT'y ÓŁ Ł - %' @, '2 Nx'
 _ÓŁ Ł - > > Ł í v' x' ö 5' Ó' M' Ž' ~M' ... O t c' fi u'
 & M'M ¶' M - - ' ¶' Ó- ' 1M' Ó..."' í' c b'
 Í u' ± i † f f †] '8 c b x' " / 15' 7k' x' w8' L á' Ø' , °
 " IH* i' Óf' í v' í x' M' . . ° " IH(' k @x' > 5Ó'
 Í '4" / 5' §Ł Öë'e Yk' YÁT' f f †] M'2] Nx' Ö" M' .³⁾

이러 맥 에서 포스트 은 단 히 진보 술과의 결 을 어
 데 르트적 세계관이 은 주체(인간)중심주의를 하고자 하는, 새로
 운 인간주의를 창 하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술을 단지 인간
 의 의를 위 수단이나 인간 향상을 위 도구로서만 이해 다면, 계
 적 자 을 지 하 나 통제하려는 대 니 적 관점에 여전히 함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주체-자의 경계 상으로 계적 자
 를 통 주체성 성을 요청하는 포스트 시대의 은 ,
 대의 계론적 세계관에 무는 것에 과하다. 포스트 시대에는 과
 학 술의 성취와 그에 따른 유 피아적 세상에 대 청사진을 그리는 것

3) Katherine Hayles, 진 역, 『 리는 어 계 포스트 이 되 는가: 사이버 스와
 문학, 보 과학의 신체 』(서 : 린책 , 2013), 26.

이상으로 이를 통해 새롭게 성 인간에 대 논의에 주 할 필요가 있다.

' ` py K } | A { 2 ` + h € ~ , f %

사이보그는 사이버 스(cybernetics)와 유 체(organism)를 의미하는 단어의 성어로 인간과 계(비인간)가 서로의 경계를 물며 관계를 통해 나 나는 존재이다.⁴⁾ 사이보그라는 성어가 포하고 있는 것처 사이보그는 단 히 서로 다른 두 존재의 물리적 결 을 의미하는 것을 어 새로운 인간의 으로 해 해야 다.

포스트 론에서 언 되는 사이보그는 주로 트 스 니스트 이 주 하는 인간 향상의 차원에서 개 신체, 변 되고 개조 인간으로 여겨진다. 이러 의미에서 사이보그는 니 이 공 동대에서 등 하는 것처 사람의 예 이 로 을 이식하여 전자두 를 재 존재이다. 다시 해, 신체적 계가 체 술에 대 도구주의적 관점에서만 사이보그로서의 존재 의미가 상 다. 이러 능주의적 사이보그 모 에 대해 재 는 임없이 인간 스스로 자 변 을 통해 무 히 연 될 수 있다는, 수명과 지식, 서적, 심리적 개 을 구하는 인간중심주의 이 반영 것이라 비 다.⁵⁾ 결 여전히 인간 안에서 제 되어야 할 것과 향상되어야 할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는 인간중심적 음에서 인 사이보그 주체는 비이성적 존재, 인간아 비인간적 존재, 인간 이하, 지하 서 등의 존재를 무시하 나 전 고려하지 는 다른 대적 주체가 지 시 의 폭력성을 양 하게 다.

4) 신상규, 『호모 사피 스의 미 』, 53.

5) 재 , “ 리는 어 게 포스트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학연구」 106(2014), 220-21.

대적 주체성으로 하지 으려는 포스트 주체성은 사이버 스의 트 스 적 사이보그를 어 인간과 술의 관계성을 통해 새로운 주체성이 구성되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다. 비인간적 존재인 과학 술이 인간의 영역을 범하 나 공 할 것이라는 안감과 공포가 대의 이분 적 사고에 리를 리고 있음을 자 하며, 사이보그는 이러 이해를 어나 주체와 체의 경계를 물어 자를 상호 주체로 맞이하는 과 을 통해 성 을 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해, 상호 관계성 속에서 비인간과의 관계 를 하는 것이 사이보그의 적 업이다.⁶⁾

술과의 결 을 개로 자와의 관계적 주체로서의 포스트 주체성을 구성해 나간다고 할 때, 사이보그되 는 대안적인 주체 성을 전 하는 방 이 다. 사이보그되 는 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주체 구성 방식을 제안하는 로지 라이도 (Rosi Braidotti)의 되 의 윤리와 그 맥 을 같이 다. 라이도는 -인간중심적인 으로서 동물-되 , 계-되 , 여성-되 등 다양 자-되 를 통해 관계적 자아 성을 시도 다. -인간(중)주의를 통해 다양 자 과의 관계 는 이분 적으로 주체와 자를 나 경직 인식론을 피하게 만든다. 인간과 비인간의 단적 결 체가 포스트 은 사이보그되 를 통해 자와의 경계 을 무 린다. 라이도는 “다수의 자 과의 상호의존성을 공감하고 인 함으로 인 공동체를 실 다”고 주 하며 “인류세 시 에 그 자 대부분이 인간의 상이 아니라는 사실은 자명하다”고 다.⁷⁾ 인간을 어 인간- 계의 결 으로나 난 사이보그되 는 포스트 시대에 단일성과 동일성의 유혹을 어 자성을 통해 관계적 주

6) 심 연, “인간과 비인간 존재는 어 게 만나는가,” 『학연구』 147(2018), 250.

7) Rosi Braidotti, 이경 역, 『포스트 』(주: 아 , 2015), 131.

체성을 구성하는 방 이 다.

이러 관계적 주체성을 지 사이보그되 는 스 학자 르 시 동(Gilbert Simondon)의 개념에 따라 ‘인간- 계의 양상 ’로 될 수 있다. 시 동은 인간과 술적 대상 (계) 사이의 관계를 주종관계가 아 존재론적으로 같은 위상에서 상호 협력적 관계로 다. 인간- 계 양상 은 술을 인간의 적과 수단을 위 도구적 수 에서 다 는 대의 니 과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대 관계성을 비 하며 자 고유의 존재 방식을 가진 개체 이 공생할 수 있도 안 다. 관계론자인 시 동의 으로 볼 때 인간이나 계와 같은 모든 개체 은 료 상적으로 구성되는 실체가 아니라 부 환경과의 관계성 속에서 점진적으로 조 되고 변화되는 안 적인 시스 이다.⁸⁾ 따라서 술적 대상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음은 지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의 실체가 주변 환경에 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적으로 관계적 존재임을 는 인식론적 전환을 통해 성 다. 이러 과 을 통해 인간과 계는 존의 규범 체계와 존재 방식에 대 서를 리며 이 적이고 통 가능 대상으로 여겨진 비인간 존재 과 인간의 새 로운 공존 지점을 확 해 나간다. 시 동은 인간중심주의적 태도에서 인 인간과 계의 만 방식을 부함으로 사이보그되 를 통해 주 체와 체의 경계가 물어지는 상호주체적 관계성을 주 다. 다시 해, 인간과 계가 을 이 는 상호 협력적 관계 구축을 통해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새로운 의 양식을 모 할 수 있는 포스트 주 체를 구 다.

8) 재 , 『시 동의 술 학: 포스트 사 를 위 청사진』(주: 아 , 2017a), 61-61; 재 , “자연 술-인간의 양상 : 시 동, 일스, 을 통해 포스트 니 ”, 『NJP 리 #7 공동진화: 사이버 스에서 포스트 』(용인: 아트 , 2017b), 195.

같은 맥에서 스 학자인 노 라투르(Bruno Latour)의 위자-트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 역시 포스트 주체로서 사이보그되 가지 함의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라투르는 인간을 포함 비인간 위자의 관계성 안에서 자고유 위성을 가므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관계성 속에서는 술과 인간, 비인간과 인간 존재가 트를 성할 때 동등 위상에서 대적인 관계로 여다.⁹⁾ 위자-트 이론이 가지는 특은 일반 사회적 통념 안에서 위상적 개념으로 이해해던 지위, 계층, 영역, 구조, 범위, 체계 등을 해체하며 유모양의 실과 같은 혹은 이나과 같은 모양의 모세관 태의 성을 한다.¹⁰⁾ 이 이론 안에서 존의 부와 부의 경계는 묻어지며 인간, 비인간의 위자 사이의 연결을 통해 존재 자체에 대 의미를 부여해 보다 어 관계 방식으로 연결을 구축하는가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위자의 개념을 인간을 어 비인간적 존재인 계적 대상으로까지 확대 라투르의 도전은 인간과 술, 특히 인간이 아 존재나 지하서 과 같은 체되던 존재 과의 관계를 어두 다는 점에서 윤리적 의 양식을 모하는 주체성 논의에 새 지을 다.

인간과 비인간의 양상, 트을 통해 구성되는 사이보그되는 이적인 존재 로 여겨지던 두 영역의 만을 통해 새로운 포스트 주체 성의 을 다. 여서 동등 위상으로서 존재 의 만은 서로에 대 등과, 의 부을 하여 부적 존재, 자를 자신 안으로 확대하는 윤리적 동을 가리 다. 이러 점에서 사이보

9) 화자, "사물인 과 를로 의 '상호세계,'" 「상학과 대 학」 65(2015), 71-72.

10) Bruno Latour, ' ?2(%3,"G)1%E3,"(%4"O**1(%;\$3# O;+.6I=\$-I.6C"G)\$\$.6@"(%4"G\$;)%.3;1\$%;\$, 성, 『인간·사물·동 : 위자 트 이론과 노사이언스』(서 : 이음, 2010), 100.

그되 가 시 는 인간 계의 관계성은 여전히 인간 중심주의적 태도에 함 되어 계적 자를 주체성으로 환원시 려는 직임을 차단하는 함의를 지 다. 나아가 포스트 주체로서 사이보그되 가 다양

부적 존재 을 통해 자신의 체성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주체의 주체 을 다고 할 때, 사이보그되 는 자에 대 인식의 지 을 가며 윤리적 관계를 구성하는 과 으로 해 할 수 있다.

다음 에서는 자 윤리에 대 사유를 비나스의 학적 개념 을 대로 사이보그되 가 는 특 을 살펴보고자 다.

%%c B , ' fl £ - " ž M ¢ † ¥ | %o[\ Z Y] ^ †

논의에서 언 바와 같이 포스트 인 사이보그되 는 인간 역 강화라는 점적인 과학적 주제라 보다 히려 인간 계의 존재 의 관계성을 재 해야 하는 윤리적 이 다. 이미 어 태로든 계적 자 과 연결되어 있고 연 되어 있는 실재와 어 살아간다는 점에서 리 모두가 사이보그임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에 서 있다. 사이보그되 는 자의 존재가 인간을 포함 인간 아 대상 을 아 른다. 동시에 그 과의 과 적인 관계 을 통해 계적 자 을 하게 되고, 나아가 새로운 위 주체 로부 영향을 받아 윤리적 주체를 창 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간다.

자에 대 적 적 사유를 해온 비나스의 학적 개념은 사이보그되 가 가지고 있는 자 윤리적 특 을 윤리적 로 살펴보는 데 통찰력을 제공 다. 물론 비나스가 자를 인간 개인적 존재로 하여 논의 다는 점에서 비인간적 존재인 계적 자로까지 그 대 상을 포함하여 사유할 수 있을지 은 연구가 필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과 변화 속에 인 개념으로 위상 지을 수 없는 자

가 하고 인간, 비인간을 어 존재론적으로 주체- 자의 관계는 윤리적 주체성 속에서 성되어야 다는 점에서 비나스의 학적 개념은 여전히 중요 시사점을 제공 다고 볼 수 있다. 이러 맥 에서 사이버그되 를 비나스의 자 윤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게 세 가지 특 을 지 다.

“EFO, ...ž † ‡ 9 ^ %0”?

비나스는 성 개념을 통해 주체와 자가 하게 있음 주 다. 성은 물리적으로 두 지점이나 영역이 가까 지는 의미도 포함하지만, 적으로는 이 에게 다가감, 관계를 이 어가는 상 이다.¹²⁾ 주체가 자를 대상화하 나 의식으로 환원하지 할 만 의 관계에 위치해 있 때문에 자에게 다가가는 주체로서 성의 주체는 자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을 어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하게 다.¹³⁾ 그 서 성의 심은 자와의 축이다. 축을 통해 주체는 자에게 가까이 다감으로 주체성을 구성하 에 이른다. 비나스에 따르면, “ 성은 이처 주체의 재적인 생을 의미 다.”¹⁴⁾ 새로운 윤리적 주체로 난 주체는 자와의 성을 통해 인식론

11) 확 (expan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 가지는 사 치적 의미를 고려하여 연 (exten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 다. “ 재 체제나 시스 의 확 은 특 의 시스 이 다른 시스 을 제 주의적으로 수 확 하면서, 동일성이 대하게 만 되는 것을 하지만, 연 은 다른 존재나 시스 과 결속되면서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트 가 성되는 것을 다.” 고 일 , “ 리는 ‘비인간 가 이다. 후변화와 생태위 시대 비인간 존재 과 함 - 을만 어나가 , ” 「 학 34(2022), 48.

12) 연 , “ 자와 함 하는 화 비나스를 중심으로, ” 『윤리연구』 94(2014), 93.

13) Marinos Diamantides, “To judge a Vegetable: Levinasian Ethics and the Morality of Law,” in 533(03” .% K\$71%(3” (%4” K(I&” 0” Q.3(1; (Springer, 2009), 137.

14) Emmanuel Levinas, #+) \$6I13\$+) (%” B\$1%E” .6” B\$@. %4” 533\$%;\$, 연 , 역, 『존재와 다르게 - 의 』(서 : 인간사 , 2010), 170.

의 피상적 관계를 피해 보다 적 적인 차원에서 자를 향해 자신을 노 시 게 다. 자에게로 다가가는 주체는 자의 지명과 환에 하는 사로 을 경 하게 다.¹⁵⁾ 이 성 속에서 자에게 인 로 사로 주체는 이제 자 중심의 비대 적 관계성을 통해 자를 위 존재로 변모하 에 이른다.

사이보그되 는 인간과 계의 성을 통해 계적 자와의 축, 을 성해 나가는 존재이다. 존의 자라고 여겨진 인간 존재가 이체는 비인간 존재와의 성으로 인해 그 자의 범주가 연 다. 사이보그되 는 인간 이성 중심주의 관계성의 을 리며 주체와 체의 구분이 사라지게 다. 무 보다 성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책임적 관계가 되 음에 주 할 필요가 있다. 사 이보그는 -신체화 존재가 아니라 계와 술이 인간의 신체를 통해 여러 방식으로 체 되는 ‘ 술의 신체화’를 이 다. 다시 해, 자를 주체의 공간 안으로 환대하여 새로운 주체를 창조하는 과 이다. 이러 과 은 도구적 차원에서 술과의 관계 음이 아니라 주체가 주체 되게 하는 존재, 나 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자에 대 윤리적 성찰을 가능하도록 만든다. 자에 가까이 다가감으로 자에 대 존재의 지 을 주체는 비인간적 존재를 포함 인간-이하의 을 살아가는 언 (the underhuman) 까지 아 를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을 게 다.

‘ ...ž 9 < Š „...ž Ž q Œ,’ “ ’ %

자와의 성을 통해 새로운 관계 성을 이 주체는 이제 자의 을 대면하게 다. 자의 은 개 적이고 구체적인 모 으로나 나며 주체의 인식과 관념 안으로 포 되 나 환원될 수 없는 신적

15) 위의 책, 164.

(epiphany)으로 등 다. 비나스는 “은나인 것으로서 주체의 능동성에 인하는 의식의 지향적 대상으로서 등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나의 감성에 용하면서 호 하면서 계시하면서 다”고 주 다.¹⁶⁾ 자의 을 통해 자의 자성을 주하게 주체는 이제 자의 명 에 할 수 에 없는 존재가 다. 은 로 나 나는 자는 “나를 이지 라”¹⁷⁾는 호 를 보 으로 주체로 하여금 윤리적 을 이끌어 다.

니 의 규범적 로 다 해 할 수 없을 만 다양 존재 양상이 나 나는 포스트 시대에 계적 자 은 인간의 관념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 의 태로 인간 주체에게 을 건 다. 사이보그-되 는 계적 자의 을 대면함으로 인간- 계의 경계 어 가에서 해체와 결 의 과 을 제3의 종적 존재가 다. 사이보그는 슬 과 계라고 하는 비인간적 대상 과의 대면을 통해 주체를 구성 다는 점에서 존의 사 문화적, 학적 관념의 자 개념을 해체 다. 인간-아 존재의 자성을 주체의 주체성을 구성하는 요 로 인 하며 인간-비인간, 신체-이성, 실-가상 등의 차이성, 다름을 아 르며 차이를 통 을 이 어 게 다.

이러 점에서 사이보그-되 는 새로운 태의 로 나 나는 계적 자의 자성, 다름(alterity) 안에서 일치를 이 어가는, ‘함 -살 아가는 존재’로의 역 변화를 일 다. 계적 자의 과의 대면을 통해 윤리적 주체가 사이보그는 (Larry L. Welborn)이 주 대 로 무수 다른 존재 과 연결 제 3자가 되는 이 에로의 사 의 명 을 환원하는 ‘사 의 일 ’(amorous awakening)을 경 다.¹⁸⁾ 다름의

16) 연 , 『비나스 자율리학』(서 : 인간사 , 2001), 14.

17) Emmanuel Levinas, *G.+(?+@” (%4” :%<!%+@*, trans. Alphonso Lingis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1), 197-200.

체 그 자체인 자를 사 하고 그 과 연 적 차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존재임을 계 되는 일은 인간을 어 능적 존재로 여겨진 계와의 , 공유, 축 등 다양 과 을 통해 받고 취 하는 존재 과 어 살아가는 을 도 안 다. 이제 대안적 인 역 으로 의 서로 있는 자 을 주 사이보그는 도 학의 적으로 의지를 부여받은 자 적 인간 위치를 어 동물과 자연, 계, 바이러스를 포함 ‘윤리적 전 ’(ethical turn)를 경 다.¹⁹⁾ 따라서 인간- 계의 종적 주체 혹은 유 적 주체로서의 사이보그되 는 변 용되는 주체로서 자에 대 인 , 환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나임을 인 하는 인식론적 전환을 이 다.

j i " „...ž ~ i / P O

피할 수 없는 자의 을 대면 주체는 이제 자의 호 에 책임적 을 실천하는 대속적 주체로 나아 간다.²⁰⁾ 비나스에게 대속은 “ 자 의 자리에 있는 자”²¹⁾로서 “ 자에 의해 책임 존재로 지 받은 가 자 를 위 책임 있는 존재로 세 지고 인을 대신해 인의 자리에 세 지 는 모 ”이 다.²²⁾ 자의 을 통해 나 나는 도 적 명 에 의해 나 자신에게서 어나는 적 자아가 다. 이제 주체는 상호 대 을

18) Catherine Keller, - *!-; (*G)\$. * . E@ " . < " +) \$ " 5 (6 -) & " # ? 6 " - * (% \$: (6 @ " 5 2 \$ 6 E \$ % ; @ " (% 4 " +) \$ " 9 : 6 ? E E \$ " < . 6 " (" = \$ I " - ? L ! ; , 일 역, 『지구 치신학: 지구적 비상상태와 새로운 생태 신학의 전환점을 위 투 』(논 : 대 간, 2020), 275.

19) Rosi Braidotti, “Affirmation, Pain and Empowerment,” *O31(%)J. 26%(* " < " M. 2 \$ % 3 " 9 : 2 4 I \$ 3*, 14-3(2008), 8; 은주, 『여성-되 : 의 동학과 페미니 』(성 : 에 투스, 2019), 191.

20) Emmanuel Levinas, # +) \$ 6 I 1 3 \$ " +) (% " B \$ I % E " . 6 " B \$ @ . % 4 " 5 3 3 \$ % ; \$, trans. Alphonso Lingis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2000), 164.

21) Emmanuel Levinas, 『존재와 다르게 - 의 』, 38.

22) 강영안, 『인의 : 비나스 학』(서 : 문학과 지성사, 2005), 184.

은 자중심의 비대 적 관계를 통해 자를 위 책임을 실천하게 다.²³⁾ 자와의 관계에서 주체는 인 로 불모가 되면서까지 어 누가 대신해 수 없는 자에 대 책임을 어지게 되는 존재가 다. 자 의 자리에 자신을 위치시 는 대적 수동성 속에서 나 나는 자를 위 책임은 결 ‘ 안의 자를 위 책임이다. 안에 받아 인 자로 부 책임을 지게 되는 주체는 이제 동일성의 폭력과 자신을 속 시 는 으로부터 의 해방을 경 다.²⁴⁾

사이보그되 는 존의 인간 이해가 구축해온 주체 중심,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에 문제를 제 하며 인간과 인간-아 자 과 책임적 관계를 지향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실 치 안에서 이미 사 문화적 으로, 구조적으로 성 관계성이 사이보그되 를 통해 구성하 고자 하는 책임적 관계에 다른 태로 투영될 수 있다는 려의 리도 있다. 그 에도 사이보그되 가 인간 이해의 범위를 인-서구-성-이성적 주체로 지은 유아론적 체성에 을 일으 며 인간을 포함 인간-아 존재 까지로 자의 대상을 이 과의 만 의 공 간을 확보했다는 점은 책임적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것으로 가할 수 있다. 무 보다 계와의 결 을 통해 ‘ 안의 자로서 사이보 그라는 새로운 주체성을 성하게 자이는 동일 시공간에 공존하지 만 인간 이하의 취 을 받아온 자 -지하서 (the undercommons), 비인간 존재 (nonhuman beings), 비유 체적 존재 - 의 존재 까지 도 인식할 수 있는 을 게 다. 그 서 사이보그되 의 중심에는 주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적 개체가 아니라 자와의 관계 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책임이 자리 고 있다.²⁵⁾ 이제 사이보그-

23) 창 , “ 이 주 과 -윤리적 환대를 향하여,” 『 사 윤리』 50 (2021), 349.

24) Emmanuel Levinas, 『존재와 다르게 - 의 』, 118-21.

되는 대의 나르시스적 체성에 반 주체의 인식론에서 어나
자의 실종이 아 안의 자에 대 책임적 을 실천하게 되는
대속적 주체가 다. 자에 대 대속적 자세는 개 적 존재자 을 어
공동체적이고 지구적인 차원으로까지 모든 문제 과 상호 연결되어 있음
을 통해 공적 책임을 수 할 수 있도 는다.

%i [\ ZY] ^ ſ fl † Ž ě " ž C ` _ \$ \$ / fl " ž

에서 사이보그-되 가 비나스의 자 윤리의 개념에 비 어
볼 때, 자 개념의 연 , 자와 함 -살아가 , 자에 대 책임의 특
을 지니고 있음을 게 되 다. 이 3가지 특 을 윤리적 로
살펴보면 환대의 윤리로 점 다. 사이보그-되 를 환대의 윤리로 전
가능하게 만 는 주요 사유로서 포 을 포로 환대의 신학을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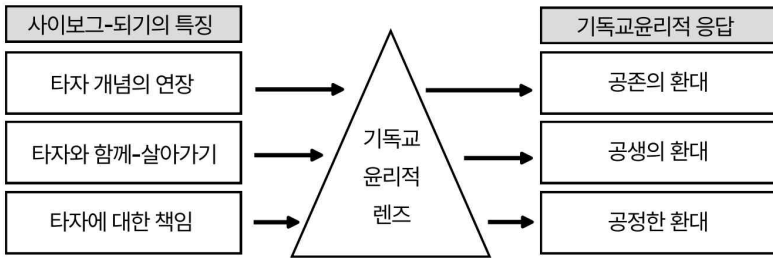
미로 라 볼 (Miroslav Volf)의 신학을 언 하고자 다. 볼 가 제
시 포 의 라 는 인간 존재를 전제로 주체와 적대적 자와의 관계
성 속에서 이 어지는 론이다. 이러 특 때문에 볼 의 신학적 개념
을 사이보그-되 의 관계로 적용하여 논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양

의 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이보그-되 를 인간 향상으
로 이해하여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비인간적 자를 동화하 나 포 ,
제하려는 트 스 니 적 상이야 로 볼 가 포 의 대상으로 여
진 화해가 필요 자리가 다. 이 볼 의 포 은 자아와 자
사이의 역동적 관계성에 관심을 두는 것이 라 의 간이라는 점에서
인간과 계적 자 관계에 유용 관점을 제공 다.²⁶⁾

25) Bruno Latour, 『나는 어 에 있는가? - 코로나 사태와 리가 지구생 자 에게 주는
』, 112; 이종관, 『포스트 이 온다 : 인공지능과 인간의 미 에 대 학적 성찰』
(고양: 사 의 책, 2017), 209.

26) Miroslav Volf. 5>:*?3l.% (%4" 52L6(; \$&" 0" G)\$.*.El:(*" 5>/*.6(+l.% .<" :4\$%+l+0,"

불 는 포 의 직임이 어지지 고 차례로 이어 야 함을 강조 다. 그의 포 의 상학적 흐름에 따라 환대의 윤리로 나 나는 3가지 환대—공존의 환대, 공생의 환대, 공 환대—역시 점차 환대의 반경 이 어지는 통 하나의 단계로 명하고자 다.



〈그림 1〉 사이보그-되기의 기독교윤리적 응답

· · · - 9 - 1 , ~ § ™ % b # %

불 가 제안하는 포 의 첫 두 단계는 려 다리 다. 을 리 는 것은 자를 윈 다는 신호이다. 구체적으로 나는 단지 나 자신으로 있지 고 자가 나의 부분이 되고, 나는 자의 부분이 되 를 윈 다는 이다.²⁷⁾ 을 으로 자에 대 공간을 만 고 자를 향해 자신의 자아로부터 물러서는 자-중심적 태도를 지향 다. 자신으로 가 차 있는 상태에서는 자를 향해 나아 수도 없고 아무리 을 려도 자를 안을 수 없 때문이다. 자아의 경계 에 을 일 으 자 를 비 으로 만든 공간에 자를 환대하는 것이다. 이후에 나 나는 다리 는 자를 만지 전에 는 과 이다. 자를 향

#+) \$6%\$33," (%4" R\$; .%; !1(+1.%" (Nashville: Abingdon Press, 2010), 141.

27) 위의 책.

자아의 만으로 화될 수 없는 직임으로 자로 하여금 자아를 향해서도 직이게 만든다.

을 려 다리는 신학적 직임은 주체로 하여금 자아중심적 관점에서 해방되어 주체의 주체성을 구성하게 하는, 자와 같은 시공간에 공존하고 있음을 계 하는 위이다. 그런 점에서 사이보그되 는 인간 주체의 범주에서 제외 된 비인간적 존재인 계를 자적 존재로 여 계 하며, 나아가 상호 용 속에 종적 존재가 되어가는 과 이 다. 특 히 개체로서 인간과 계가 동등 위상에 공존하고 있다는 인식 전환은 실천적 윤리로 이어 공존의 환대로 해 나간다.

관계적 존재론에 공존의 환대는 인간 계의 관계 음이 여러 양상 로 되어 결 적 존재가 아 비결 적 태를 통해 차이성에 인간 계의 '개체 적 양상 '을 확보하도록 만든다. 환대라는 이름으로 주체가 자에 대 환원이나 동일성을 강요하 보다 다양 개체 과 단 사이의 적 공명을 이 어가는 단적 통이 성 다. 단적 통의 중심에는 개체의 차이성과 특성을 존중하여 피라미 구조와 같은 수직성을 부하며 동시에 개성 이 사라진 수 성도 부 다.²⁸⁾ 이는 을 려 다리는 윤리적 실천으로서 사이보그로 하여금 자신의 공간을 비 자와 적 공명을 이 어가는 공감에 이르도록 한다.

' · M9 → , ~ U > %

모으 는 볼 에게 있어 상호성에 반 포 의 종 이자 포 자체이다. 모으 를 통해 포 으로 대를 하고 대를 받은 존재 는 이제 이 포 의 위 안에서 주인은 님이 되고 님은 주인이

28) 재 , 『시 동의 술 학』, 221.

다.²⁹⁾ 이제 주체는 자와 공존을 함 -살아가 위 , “ 자를 이해 하지 을 수 있는 이상 능력”을 게 다.³⁰⁾ 자의 자성을 인 하 면서 동시에 그 일부를 자아의 체성 안으로 변화하여 스스로를 변 시 나간다. 을 모을 때 과도하게 안아 자를 주체성 안으로 동화시 보다는 부 러운 촉을 통해 자아라는 로 다 아 수 없는 혹은 물음으로 에 될 수 없는 자의 투명성을 인 하 에 이른다.

공존의 환대를 통해 인간 존재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 존재 , 계 와 (비)물 인 사물까지 포함 자 과의 공존을 게 사이보그 되 는 이제 다양 위주체 과 함 -살아가는 존재임을 자 다. 아무리 술의 과 계의 도 으로 인간 역 이 강화 포스트 일지라도 로 존재할 수 없는, 다른 존재 과의 유 체적 관계성 속 에 공생하는 존재가 다. 이러 맥 에서 사이보그되 는 인간과 계 가 서로를 향해 포 이라는 위 속에 을 모으는 업으로 인간이 계 가 되고 계가 인간이 되는, 서로가 없이는 살아 수 없는 공생의 환대 를 실천하게 다.

같은 맥 에서 일 은 인간이 사이보그가 시대에는 ‘인간 역 ’이 아 ‘존재 역 ’(capability for existence)에 대해 논해야 다고 주 다. 인간이 계나 인공 치 등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적으로 이끌어 나가 위해서는 인간중심적 사고방식에 반 존재 인식이 아니라 모 든 존재와 어 을 함 만 어가는(sympoietic) 실재를 고려해야 다고 다.³¹⁾

사이보그되 는 -신체화 존재가 아니라 인간- 계의 환대를 통해

29) Miroslav Volf, 5>:*?3l.%" (%4" 52L6(;\$, " 143.

30) 위의 책.

31) 일 , “ 후변화와 생태 위 시대 인간의 존재역 : 해러 이의 공 , 의 사물 치생태학 그리고 바라 의 부적- 용에 대 성찰,” 「인간연구」 44(2021), 41-42.

구체적 을 살아가는 체 되고 체화되는 주체성에 이른다. 공생의 환대는 주인- 님의 관계에 반 조건적 환대이 보다 포스트 주체가 자신 스스로 주체성을 구성할 수 없는, 개 적, 적 존재가 아니라 는 인식에서 다. 이를 통해 자 없이 주체 로 존재할 수 없는 유 체임을 고 인간과 비인간, 신과 체의 분리를 어 상호 을 통해 나 나는 술적 대상 의 치적 위주체성을 고려할 수 있게 다. 공생의 환대를 통해 주체성을 구성 사이보그되 는 이제 관계적 안에서 게 간과될 수 있는 사 적 실천과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까지 책임적 을 가능하게 하는 공 환대로 나아가게 다.

j · œ / → „ b Ÿ ~ š # %

포 의 지 단계는 다시 리 이다. 자가 자아 안에 공존하고 있음을 고 함 -살아가는 공생을 이 고 있지만 자의 자성이라는 역동적 체성이 되지 도 다시 을 으로 자를 병 하 나 분화하려는 직임을 방지 다. 볼 는 이 포 의 라 가 단계 을 통해 나 을 강조하며 포 했던 을 다시 리는 것은 첫 째 단계에 자를 향해 을 리는 동으로 연결되는 환적 특 을 지 다 고 강조 다. 다른 자를 향해서도 임없이 린 을 통해 자아와 자의 반 과 동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 직임은 제3자적 존재 을 위 치적이고 실제적인 책임으로 결 다.

포스트 시대는 인간을 포함 계, 자연, 술 등 자 개념의 연 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의 존재론적 관계를 조 하며 재구성 다. 인간 과 비인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서로의 영역에 투하는 과 이 이 어 을 고려할 때, 이 두 위자의 만 은 종적으로 서로 어 존재 양식의 방식을 공유할 것인지에 대 문제로 점 다. 인간- 계의 종

적 주체성을 지니 사이보그가 되는 과정에서 적 위자로서의 인간에 대해 책임적 질문을 문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으로 사이보그되는 단 하나의 계의 전으로 역이 항상 주체가 아니라 신체성을 보유하고 있는 도적 존재로서 임없이 자신을 둘러고 있는 위자과의 책임적 대화를 통해 새로운 존재론적 관계성을 생해 나가야 다. 인간과 술의 역동적 관계 재에 여전히 인간에 대해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대인간(인류)중심주의나 주체 중심의 위계적 관계로의 환원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를 향해 열려 다리고, 열리고, 다시 열리는 동을 통해 인간을 포함 계적 존재를 향해 열음 나아가는 '존재론적 모험'(the ontological adventure)이다.³²⁾ 자를 향포의 단계은 단 환영과 감각적 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를 둘러고 있는 적 구조와 시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공환대로서 계에 대해 도구적 이해와 지적 태도, 상에어나게 다.

불의포의라는 자가에서 인류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포에서인 다. 특히 자를 받아 이고그 열 위해 주체의 자리를 어주고 자리를 하는 불의 신학적 사유는 자가에서 나 난다.

L [5 ~ ` " c ' fi u ' Ž ž † 5 '] i ' fl ' _ k c b ' _ 0 (' f
 O ' L \ (' K e ' t † t ' @ ~ ' a c ' ! > ' : ' u ' . M u '] k
 8 ¶ ') 5 f ' x ' @ ~ ' a k _ Ž ' æ " 5 ' L \ k ' a d (' € € ' L % N
 u ' .³³⁾

32) Emmanuel Levinas, "Substitution," in *B(31; " -)* 8.3. / 1; (*M61+1%E3, eds. Adriaan Peperzak, Simon Critchley, and Robert Bernasconi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2008), 86-87.

33) Miroslav Volf, *5>; *?3l. %" (%4" 5 2L6(; \$, 25.*

볼 는 자가에서 나 난 자신을 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 은 위 일체 하나님의 사 에 다고 주 다. 그런 점에서 자가에서 두 을 려 하나님의 환대를 실천하신 그리스도의 자 생은 시대의 과 차 , , 로부 의 해방을 이 어 공 환대이다. 이제 다 시 을 려 공 환대를 실천하 에 이른 사이보그되 는 계적 자 을 구속하고 혹은 두려운 존재로서 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에 대해 하는 능력(response-ability)을 유 존재로 다양 자 까 지 아 르는 윤리적 주체로서의 포스트 이 될 수 있다.

| i . j k n

연구는 과학 술의 로 등 포스트 으로서의 사이보그를 분 하고 윤리적 을 모 하 다. 대 니 이 주 해운 자 이해, 인간을 포함 인간 아 존재 을 이분 으로 나누고 인 간(주체)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위계적 관계를 해 던 동에서 어 나야 함을 고찰하 다. 그 서 사이보그되 를 통해 포스트 주체성 을 구성하는 일은 과학 술을 도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인 차원에서 비인간 존재인 계, 술을 동일 위상에서 위주체로 환대하여 자를 통해 주체의 주체성이 되는 종적 주체로서의 변 위를 이 어가는 과 으로 해 해야 함을 주 하 다. 이 과 에서 비 나스의 자 윤리는 사이보그되 가 단지 인간 역 을 적으로 는 사이버 스적인 차원이 아니라 자 개념의 연 , 자와 함 -살아가 , 자에 대 책임의 특 을 지니고 있음을 하도 안 하며, 볼 의 포 의 라 를 통해 공존, 공생, 공 환대의 신학적 실천으로 될 수 있음을 제안하 다.

윤리적 으로서 사이보그되 가 는 의미와 환대 윤리의 이

론적 가능성을 모 하 지만 보다 실제적이고 치적인 의 자리에서
연구가 어 게 실 될 수 있을지는 은 연구가 필요 부분이다.
그 에도 사이보그되 로 자에 대 인식의 지 이 연 되고 계적
자가 인간 주체 안으로 그 경계가 사라지는 상 자체가 이미 서 제
안 세 가지 환대 윤리의 이론이 실 되고 있다는 다. 사이보그되
에 대 윤리적 성찰을 통해 인간 이하의 존재적 을 살아가는
자 과 어 생태, 동물, 지구공동체 등 제3자적 자를 향해서도 이
환대의 실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대 다.

참고문헌

^ . 『y Ô ě : S 4 ~ ° ' 1』. b Ê : ~ 1 ' ' -] L , 2005.

© p . 『y _ % ' @ x ' 6 7 - S 4 ~ ° > +) * ' .』 「# ! p 2」 94(2014), 87-105.

© p . 『S 4 ~ ° ' y _ # ! 1』. b Ê : Ô Ó L \ , 2001.

© ĩ f . 『e] -Nž : " Ā ě ě . 1 ' ' ÷ A Ā ö .』 ' : c ĩ ° , 2019.

© è æ . " = ! x ' , ' . " I H ' f t k ' ' v ' x k . " 「 1 p 2」 106(2014), 215-242.

_____. 『fl . ě ž ' 1 : ' . " I H ' L [> ' t u ' } L』. f : Y C , 2017a.

_____. " _ p -ž -Ô Ó ě ' x « è : fl . , { < ° , ' (' Ę Ę ' , ' . " I Ā ö . " 「NJP ! Ú ' # 7 ... 7 : L M ' c b ' . " I H」 (2017b), 189-201.

© 7 _ . " L / Ô Ā ' ' > ĩ ž ě ' « wù ø ' . " 「É « 1 ' É fi 1」 65(2015), 61-94.

< . 『ž ĩ 7 % " \$ t ž fl fi ' Ô Ó ě ' Ô ë ä : € M ě ' ... - , ě L / > Š " \$ 1 ' J ! æ ' T ě ' Ý 5 - Đ c ' fi u ']』. 「Ô Ó p 2」 44(2021), 39-76.

< . " = ! x ' 4 ' Ô Ó k M ' : ž ĩ 7 % " \$ t ž fl fi ' 4 Ô Ó ' Ô ë " ' - (- : " ' k ž . " 「ž ž ĩ 1」, 34(2022), 33-66.

O « š . 『w 8 ' L á ě ě ' A : ' . " I H ' ' . " I Ā ö .』. f : Y C , 2019.

) p . " Ô Ó ' 4 Ô Ó ' Ô ë x ' , ' : ' x k . " 「 1 p 2」 147(2018), 239-60.

Mü a . 『. " I H M ' ' : Ô ... - l ' ' Ô Ó ě ' A c ' fi u ' 1 5]』. cem : L ě ě ' q , 2017.

ò G É . " u M p f ' ' u ' ' t [- # ! 5 ' Æ fi > ' @ e . " 「ž ž ĩ L [# !」 50(2021), 335-61.

Braidotti, Rosi. "Affirmation, Pain and Empowerment." *031(% J. ?6%(*" .< M. 2\$%3" 9+?4!\$3*, 14-3(2008), 7-36.

- Braidotti, Rosi. *G* - .3+) ? 2 (% M" 'à , 『. ° " I H』. f : Y C , 2015.
- Diamantides, Marinos. "To Judge a Vegetable: Levinasian Ethics and the 'morality of law'." 533(3) .% K\$71%(3" (%4" K(I&" O" Q. 3(1; (2009), 128-44.
- Hayles, Katherine. ' . I" M\$ B\$; (2\$ - .3+) ? 2 (%d"]16+?(*" B. 41\$3" 1%" F@L\$6%\$+1;3," KI+\$6(+?6\$, " (%4" :% . 62 (+1;3. 'à , 『= ! x ' , ' ° " I H M N x k : L M ° % ~ 1 , > K ' ' 1 t ' O † "』. b Ê : , q " , 2013.
- Keller, Catherine. - . *!+; (*" G)\$. * . E@" . <" +)\$" 5(6+) &" # ? 6" - *(%\$+(6@" 5 2 \$ 6 E\$%; @" (%4" +)\$" 9+6?EE*\$" <. 6" (" = \$ I" - ? L\$!; . < 'à , 『- 2> Š O 1 : - 2 5 4 « L \$ % ± i † " \$ O 1 t ð Æ d (' t u j』. Ÿ : fi Î Ó , 2020.
- Latour, Bruno. # ^" 3?13Y_ \$a" &" K\$b. %3" 4?" F. %!%\$2\$%:" c" KX?3(E\$" 4\$3" G\$66\$3+6\$3. © Â 'à . 『~ x ' c ' x k ? - / i ~ ' L \$ % ' ! k ' - 2 " _ " c , f x ' †』. b Ê : MÊ , 2021.
- Latour, Bruno. ' ? 2 (%3, " G)1%E3, " (%4" O**1(%; \$3&" O; +. 6Y=\$+ I . 6C" G)\$. 6@" (%4" G\$;)%. 3; 1\$%; \$. ò] '™ä . 『Ö Ó · L / . . : f t _ " ç ' Mh ' ç L M °』. b Ê : MÊ , 2010.
- Levinas, Emmanuel. "Substitution." In *B(3l; " -)1*. 3. /)1; (*" M6l+1%E3*, edited by Adriaan Peperzak, Simon Critchley, and Robert Bernasconi.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2008.
- Levinas, Emmanuel. #+) \$6 I 13\$" +)(% " B\$1%E" . 6" B\$@. %4" 533\$%; \$, Trans by Alphonso Lingis.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2000.
- Levinas, Emmanuel. #+) \$6 I 13\$" +)(% " B\$1%E" . 6" B\$@. %4" 533\$%; \$, © p · u 'à , 『Ö ë % ' ¼ , - _ t ' ä™』. b Ê : Ö Ó L \ , 2010.
- Levinas, Emmanuel. *G. +(*!+@" (%4" :%<1%1+@*. Trans by Alphonso Lingis.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1.
- Volf, Miroslav. 5> ; *?3l. %" (%4" 5 2 L6(; \$&" O" G)\$. * . El; (*" 5> / * . 6(+1. %" . <" : 4\$%+1+@, #+) \$6%\$33, " (%4" R\$; . %; 1\$1(+1. %8" Nashville: Abingdon Press, 2010.

논문투고일: 2023년 03월 15일
 심사개시일: 2023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04월 11일

